현불논단



법산 스님
학교법인 동국대 前 이사장

새해, 다시 수행이다

‘부처님 같이 되는 것’이 불자의 염원
이는 正覺 성취하는 마음 일으킨 원력
수행, 어둔 마음 닦아 밝게 하는 실천

역대 부처님, 조사 스님, 재가신도들도
수행해 불교 가르침이 계승 전수되어져

정성으로 하는 염불, 참선이 모두 수행
새 아침 맞으며 새로운 각오로 정진해야

밝은 거울은 탐착함이 없으니
일체 만상의 차별상을 두루 비추어도
시비하는 자가 없느니
비록 더럽고 깨끗함을 나타내지만
증오하는 이 없네.

모든 생명 더불어 사는 이 세상에 증오하거나 시비하는 마음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사회는 평화롭고 아름다운 정토사회일 것이다.

이 세상 어떤 사람도 평화와 행복을 원하지 않는 자 없으리라.

그러나 투쟁뇌고(鬪爭惱苦)의 세상을 동시대에 함께 살면서도 개개인이 먼저 탈출하려는 탐착심에 이끌려 상부상조하여 함께 벗어나 함께 행복하자는 공동체 의식은 전혀 하지 않고, 서로를 망하게 하거나 죽이려는 시비와 증오의 마음으로 눈살을 찌푸리며 괴로워하고 있다.

2023년 신묘년 붉은 태양은 어느 해나 변함없이 쾌청한 동녘 하늘에 솟아오르며 일체 생명에게 희망찬 메시지를 발산하였다.

저 차별없는 태양의 햇살 같은 지혜의 광명이 모든 사람의 마음에 점화되어 토끼 같은 착한 마음으로 시비와 증오가 없는 화해와 용서로 평화롭고 행복한 사회가 되기를 발원해 보았다.

처음 마음을 일으키는 것 즉 초발심이 바로 바른 깨달음의 길이라는 부처님의 말씀이 있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새로워져야 한다, 새로워진다는 것은 지난 일 혹은 지난 시간을 돌이켜 새로운 각오를 다지자는 뜻이다. 불자의 염원은 ‘부처님 같이 되는 것’이다. 즉 ‘성불합시다’이다. 이는 또한 ‘발아뇩다라삼먁삼보리심’ 즉 위없고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려는 마음을 일으킨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이 깨달음의 상태 즉 고따마 싯달르타가 깨달아 석가모니 부처님으로 존경받게 된 경지는 어떤 것일까? 이것은 부처님께서 ‘모든 생명이 본래 갖추고 있다’는 진여불성(眞如佛性)이다. 이 자리는 미세한 티끌도 묻지 않은 거울(古鏡)과 같이 맑고 깨끗한 것이다. 이 티끌은 곧 탐착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삼독심(三毒心)을 말하며 불자가 발심하여 수행한다는 것은 이 은산철벽 같은 미혹한 삼독심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 삼독심을 완전이 제거해 본래 청정한 생명의 자성을 회복하면 태양 같이 밝은 지혜가 들어나며 어떤 경계 어떤 생명과도 더불어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불자들이 지극 정성으로 하는 염불, 참선, 참회의 기도가 다 수행이다. 새해를 맞고 새 아침을 맞으며 나날이 새로운 각오로 정진해야 한다.

평상심이 도(道)라는 말이 있다. 어떤 경우 어떤 환경의 어려운 와도 불퇴전의 굳은 신심으로 절대 물러나서는 안 된다. 순간순간의 수행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은 이를 극복하며 성불하는 시기까지 정진해야 한다.

수행은 어두운 마음을 닦아 밝게 하는 실천행동이다. 역대 부처님도 역대조사 스님들도 재가의 모든 신도들도 그렇게 수행하여 오늘 날까지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수되어 문수보살의 지혜로 보현보살의 실천수행으로 우리도 부처님의 깨달을 향하여 정진하고 있다.

무엇을 걱정하랴
내 마음 나날이 밝은 태양처럼
밝고 아름다운 진여자성을 갖고 있거늘

나날이 기쁨을 함께하는 불자들이여!
우리들의 발심과 원력을 반드시 성취하여
불국정토 실현하세.



지원 스님의
마음처방전

세상을 바르게 봅시다

우리는 사물을 볼 때 자신의 고정관념이나 견해로 봅니다.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어떤 선입견을 갖고 대하는 것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가정에서, 학교와 사회에서 학습한 것이 내 견해의 일부를 차지할 것입니다.

새끼줄을 보고 뱀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육안입니다. 뱀을 뱀으로 보아야 하는데, 뱀을 새끼줄로 보는 견해를 가졌다면 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눈에는 육안과 심안(心眼)이 있습니다. 육안은 육체적인 눈이요, 심안은 마음의 눈입니다. 심안은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가진 눈입니다. 심안으로 보기 위해서는 고정관념, 선입관,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합니다.

현자들은 “있는 그대로 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밖으로 드러난 모양새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실체를 꿰뚫어 보라는 의미입니다. 그 말에는 ‘선입견을 가지고 보지 말라’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제한된 생각과 제한된 개념으로 세계를 보며, 이것에 반대한 저것이 있다는 관념을 벗어나지 못한 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물을 볼 때 그것의 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려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자기 관점에 맞도록 수정해서 보려고 합니다. 그러고는 우리 안에 있는 사물의 모양과 눈에 보이는 모양이 일치하면 흐뭇해 하는 겁니다.



그림 · 최주현

우리가 어떤 대상을 본다는 것은 나의 관념에 비추어서 내 마음에 투영된 그 모습으로 본다는 것이지, 결코 어떤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보는 것은 스스로 각색한 모양입니다. 눈으로 본다고 하지만 뇌가 먼저 보고 판단을 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실체를 매우 서툴게 각색한 모습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곧잘 좋은 사람, 나쁜 사람으로 분류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좋은 사람이란 내 구미에 맞는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내 비위를 잘 맞추어 주는 사람이지요. 나쁜 사람이란 내 비위에 거슬리거나, 내 뜻에 잘 따라 주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볼 때도 자신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개념으로 보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과 사물에 대해 나쁜 선입관을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어떤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비뚤어진 견해를 가진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바른 길로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괴롭히는 요인이 됩니다.

바르게 보기 위해서는 우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유연한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육지장사 회주〉

社說

샤카디타 세계대회에 거는 기대

전 세계 여성수행자들의 대화합 장이 될 샤카디타 세계대회가 6월 23~27일 서울 코엑스와 봉은사, 전국비구니회관 등에서 성대하게 개최된다.

‘위기의 세상 속에 깨어있기’를 주제로 열리는 제18차 샤카디타 세계대회는 전국비구니회와 샤카디타 코리아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대규모 국제행사로 40여 개국에서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대회는 2004년 열렸던 8차 대회에 이어 19년 만에 서울에서 열리는 것으로, 서로 다른 환경에 처해 있는 세계의 비구니 승가가 어떻게 소통하고 연대해야할지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5일 동안 총 6개 주제의 논문발표와 62개 워크숍, 포스터 발표, 세계의 명상, 저녁예불, 저녁법문, 문화공연, 전시 등이 이어진다. 불교를 넘어 한국의 아름다운을 소개할 시간도 준비돼 눈길을 끈다. 연등행렬과 사찰음식, 서울 야경 투어 등으로 K-콘텐츠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커진 가운데 다양한 한국 전통문화를 전 세계에 알릴 절호의 찬스다.

전국비구니회는 샤카디타 세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수년전부터 합심, 추진위원회를 출범하고 세미나와 포럼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또 대회장인 전국비구니회장 본각 스님은 각종 예산을 유치하기 위해 다각도로 방안을 모색, 현재 그 결과가 이어지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샤카디타 세계대회를 통해 세계 여성불자들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각국 여성불자들의 활동을 공유, 교육과 연구활동을 통해 부처님 가르침에 기반한 세계평화 구축과 인류 이익을 위한 자비로운 사회활동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뿐만 아니라 한국 비구니 스님들의 재능이 아름답게 꽃피어 비구니 승가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동국대 제20대 총장 선출에 부쳐

동국대 제20대 총장에 윤재웅 동국대 다르마칼리지 학장이 선출됐다. 이로써 오는 3월 1일 이후 4년동안 동국대를 이끌 수장이 결정된 것이다.

윤재웅 차기 총장은 동국대 국문학과에서 학부를 졸업하고 석 · 박사학위를 받은 ‘동국맨’이다. 윤 차기 총장은 미당 서정주 시인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은 마지막 애제자로 미당의 전문연구자이기도 하다.

윤 차기 총장은 건학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만큼 소견 발표 당시에도 건학이념 교육 강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워 눈길을 끌었다. 이를 통해 ‘인류의 미래를 선도하는 세계의 대학’을 비전으로 국내 5위, 글로벌 100위 대학을 발전시키겠다는 게 윤 차기 총장의 목표다.

윤 차기 총장은 건학 이념 구현을 위해 △불교교육학 체계 구축 △건학이념 교육 일상화 △명상교육 표준화 및 융합 프로그램 개발 △디지털대장경 사업 등 국책사업 유치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동국대는 2021년 4월 29일 출범한 건학위원회를 통해 많은 변화들이 이뤄졌다. 전액장학제도인 ‘동국건학장학’과 지역사찰과 학생들을 연결하는 장학제도인 ‘지역미래불자육성장학’이 신설돼 많은 학생들이 수혜를 받았다. 지난해 9월에는 대기업과 공기업이 참여한 취업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동국대는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2년 연속 9위를 달성하는 성과를 보였다.

새로 선출된 윤 차기 총장의 어깨는 무겁다.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들은 위기 상황이며,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동국대를 법신불(法身佛)로 여기고 학교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윤 차기 총장의 각오처럼 동국중흥을 통한 불교중흥을 기대해본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겸 대표이사 : 구태서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04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길과 내가 하나가 된다!”
- 行禪 전문 신발 -
수 행 화
■ 발을 통해 자연이 온몸으로 느껴져 행선에 적합합니다.
■ 천연 지압 효과를 통해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 발 볼이 넓어 다른 신발 대비 발가락 움직임이 편합니다.
■ 승복과 일치하는 색상으로 언제 어디서나 부담이 없습니다.

· 색 상 : 그레이화이트 (밑창 흰색)
그레이블랙(밑창 검정색)
· 사이즈 : 233~293mm
· 특 징 : 발 볼 부터 뒷굼치까지 제로드롭 형태
밑창 두께 3mm. 맨발에 가까운 베어풋 디자인
특판가 : 45,000원 무료배송(무압박 양말 증정)

수행화 그레이블랙
Hit 어싱 슈즈 특판가 : 65,000원
무료배송(무압박 양말 증정)
■ 지구와 연결되는 EARTHing 효과
■ 일반인도 편안하게 신을 수 있는 기능성 신발
· 소 재 : 도전특수고무 밑창 적용 캔버스화
· 사이즈 : 233~293mm
· 특 징 : 발바닥으로 땅의 굴곡을 느낄 수 있는 접지기능
일반신발 대비 1/10 수준의 3mm 밑창 두께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